

명리학 고법과 신법의 논리구조 비교연구

나혁진*, 정경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gic Structure of Myeongri Old Law and New Law

Hyeok-Jin Na*, Kyeong-Hwa Jung**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고법 명리학의 명리 이론들을 연구 정리하여 고법의 사주 모형을 재현하고 고법의 사주해석법과 신법의 사주해석법의 논리구조를 정리한 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그 간명법을 논리적 체계를 재확인해 보는 것이다. 명리이론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것은 귀곡자와 낙륙자를 시원으로 삼아 그들이 활동했던 전국시대라고 보는 이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동진의 괘박에 의해 ‘옥조경’이 쓰여진 것이 시원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그 이후 월천강과 이허중 등에 의해 체계화되어 가던 명리이론은 송대 서자평에 이르러 크게 변혁을 겪게 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앞 세대의 명리이론을 고법, 그 이후 서자평으로부터 시작되는 명리이론을 신법이라고 후대인들은 칭한다. 명리학 고법과 신법의 논리구조 변화는 둘 사이의 큰 차이점과 단절 현상을 남겨놓고 있지만 명리학 고법과 신법 모두 음양오행과 천간지지라는 자연의 상징체계, 천지인 삼원에 투영된 천인 감응 사상, 연월일시의 궁위가 가진 세대와 시간의 개념, 천기의 생왕사절 유행 등의 자연법에 기인한 철학과 논리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명리학, 음양오행, 삼원사상, 궁위론, 생왕사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ffirm the logical framework of the saju analysis method by recreating the saju model of old-law to study and organize the theories of frame in old-law Myeongri, and then by organizing and comparing the logic structure of the saju analysis method of new-law and old-law. Some believe that Myeongri Theory first appeared in the world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when they were active with Gwigokja and Naknokja as origin, while others believe that it was origin that “Okjokyeong” was written by Kwak-Bak of Eastern Jin after a while. Since then, Myeongri Theory, which had been organized by Won-Cheongang and Yi-Heojung, has undergone a major transformation since reaching the Song Dynasty Seo-Japyeong. Based on this point, the Myeongri Theory of the previous generation is called the Old-law, and the subsequent theory is called the New-law. The changes in the logic structure of the old-law and the new-law leave a big difference and disconnect between those. But comparative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 philosophy and logic structure due to natural laws that have not changed much such as the symbolic system of nature called Yinyang & five elements and Cheongan-jiji, the idea of a heavenly response projected in the Three Wonders of heaven, earth and human, and the concept of generation and time in the position of year-month-day-time.

Key Words : Myeongri, Yinyang & Five elements, Three Wonders Idea, Gungwi Theory, Saengwangsajeol

Received 16 June 2020, Revised 22 June 2020
Accepted 15 July 2020
Corresponding Author: Hyeok-Jin Na
(University of Brain Educaiton)
Email: peter750504@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세 가지 영향을 받으며 인간의 삶을 시작한다. 그를 잉태하고 혈육을 물려준 부모의 유전적 영향이 그 첫 번째가 되고, 그가 태어난 땅의 지리와 기후, 즉 풍수 에너지인 환경적 영향이 그 두 번째가 되고, 그가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체내에 흡수되는 우주 에너지는 시간의 개념으로 환원되는데 이 운세의 영향이 그 세 번째가 된다. 이 시간적 개념, 즉 운세의 영향을 살펴 인간 운명의 길흉화복을 추론해 내는 예언체계인 사주명리(四柱命理)는 오래전 중국에서 체계화되고 시작되었지만, 그 시원(始原)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명리 고전 저술 중 정확한 작자의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동진의 곽박(郭璞, 4세기 초), 당대의 원천강(袁天綱, 7세기 초), 이허중(李虛中, 9세기 초) 등에 의해 4세기~9세기 사이에 고법(古法) 명리학(命理學)이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명리학자들보다 앞서 귀곡자와 낙록자를 명리학의 시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귀곡자는 『이허중명서』의 원문에 해당하는 유문(遺文)을 후대에 전하였다 그 서문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증거가 부족하고, 낙록자는 『낙록자삼명소식부』라는 명리 고전이 명확히 남아있고, 후대 학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주석서가 쓰여질 만큼 명리학적 학술 가치가 높은 고전이지만 낙록자라는 저자명은 필명(筆名)으로 사용된 것이다 보니 인명기록의 부재로 정확한 저술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대 명리학을 신법(新法) 명리학 혹은 자평(子平) 명리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대(五代) 말에서 남송(南宋)에 걸쳐 서자평(徐子平, 11-12세기 추정)과 서승(徐升, 13세기 중)에 의해 일간(日干)을 사주 당사자의 주체로 보고 살피는 사주 간법 체계가 완성되었고, 고법(古法) 명리학과 조금은 다른 간명법으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신법 명리학의 간명법은 음양오행론, 십간십이지론, 지장간론, 일간위주론, 십성론, 월령론, 격국론, 용신론 등을 기초이론으로 하여 인간의 사주(四柱) 분석과 행운(行運) 분석을 하고 있다. 서자평과 서승의 변화 및 완성은 『연해자평』, 『적천수』, 『명리정중』, 『난강망』, 『명리약언』, 『자평진진』 등을 통해 신법 명리학의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되었고 이 고전들이 자

평명리학의 보급과 전수를 도아 왔다.

신법(新法) 명리학은 일간을 중심으로 한 음양오행의 생극관계를 십성(十星)이라는 술어적 개념으로 체계화하였고, 태어난 월령(月令)을 중심으로 격국을 정하는 비교적 간단한 간명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고법(古法) 명리학은 납음오행을 인원(人元)으로 삼고 그 취상 및 상태를 가지고 회기를 논하고, 연주를 본(本)으로 삼고 일주를 주(主)로 삼으며 태월(胎月)까지 포함하여 5개의 육십갑자 기둥을 포괄하여 간명하고, 십이운성과 신살로 사주체의 변화를 간명하였다. 신살의 종류가 100여개에 이르고 기억해 놓아야 할 격국도 20~30여개가 훌쩍 넘으니 그 간명법이 상당히 복잡하였다.

고법에서 신법으로의 변화라는 것이 음양오행론과 십간십이지론으로 대표되는 근본적 명리 철학이 바뀐 것은 아니었으나, 천지인(天地人) 중 인원(人元)이 납음오행에서 지장간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그 외에 연본일주(年本日主)가 일간위주(日干爲主)로 바뀐 점, 간명을 위한 관계성을 신살(神殺) 보다는 십성(十星)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취사선택의 문제였을 것이다. 고법과 신법 명리학 모두 결국은 그 당사자의 성격과 적성을 파악하고, 행운(行運)을 살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학문이었으므로 더 예측 정확도가 높은 간명법으로 변화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하지만 고법과 신법의 간명법을 정확히 비교하고 예측 정확도가 어떤 것이 더 높은지 통계학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2010년대 들어오면서 명리학계의 통계학적 연구가 심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리학 고법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주를 간명하였는지를 정확히 소개하는 저술서가 없고, 구전 학습으로 전해져 오던 고법 간명법들도 신법 자평학과 혼재되어 사용되다 보니 그 중심 간명법 체계는 잊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고법 명리학의 명리 이론들을 연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고법의 사주 모형을 재현하고 그 논리구조를 신법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 간명법을 논리적 체계를 재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법의 사주해석법과 신법의 사주해석법의 논리구조를 정리한 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명리학 고법과 신법의 시대구분

명리(命理)의 명(命)은 하늘의 명령이고 리(理)는 하늘의 이치이다. 하늘의 명령, 천명(天命)을 『맹자』에서 살펴보면 2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하늘이 내게 준 책임이나 의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객관상황’을 의미하는 경우이다.²⁹⁾ 이러한 명(命)의 의미에 하늘과 자연의 이치라는 뜻인 리(理)가 함께 조합되어 처음 나타난 것은 ‘신봉통고(神峰通考) 명리정종(命理正宗)’이다. 송대 주자가 제창한 성리학(性理學)이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성(性)과 하늘이 이치라는 리(理)의 조합으로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이치가 하나이며 같다는 사고에서 시작된 것을 빗대어 장남(張楠)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명리학(命理學)은 광의적으로는 하늘이 부여한 천명(天命)이 대자연의 이치와 같으니 이를 서로 비추어 추론하고자 하는 학문이란 뜻이 된다. 하지만 협의적으로 봤을 때의 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年月日時를 간지(干支) 여덟 글자로 치환하고 그 상호관계를 해석하여 명(命)을 알아보는 지명(知命)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명을 탐구하는 학문이란 뜻에서 명학(命學)이라고도 부르며 중국인들은 여덟글자를 통해 명(命)을 살핀다하여 팔자명학(八字命學)이라 부른다.

명리이론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것은 귀곡자와 낙록자를 시원으로 삼아 그들이 활동했던 전국시대(戰國時代)라고 보는 이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동진(東晉)의 괘박에 의해 ‘옥조경(玉照經)’이 쓰여진 것이 시원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귀곡자(鬼谷子), 낙록자(洛球子), 괘박(郭璞) 그리고 그 이후 원천강(袁天綱)과 이허중(李虛中) 등에 의해 체계화되어 갔던 명리이론은 태어난 年을 기준으로 삼는 해석법과 납갑·납지법을 통해 간지의 오행 속성을 정하는 납음오행(納音五行)을 사용하고 있었다.³⁰⁾

이러한 이론체계는 송대(宋代) 서자평(徐子平)에 이르러 크게 변혁을 겪게 되는데 앞선 명리학자들이 年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 반대하고 일간(日干)을 기준으로

삼는 간명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납음오행을 사용하지 않고 지장간의 정오행(正五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변화를 시도한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앞 세대의 명리이론을 고법(古法), 그 이후 서자평으로부터 시작되는 명리이론을 신법(新法)이라고 후대인들은 칭한다. 고법을 삼명학(三命學) 혹은 녹명학(祿命學)이라고도 부르고 신법을 자평학(子平學)이라고도 부른다. 고법 사주와 신법 사주, 고법 명리와 신법 명리, 고법 삼명학과 신법 자평학 등 신구(新舊)를 구분하고자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고법 명리학과 신법 명리학이라는 명칭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3. 명리학 고법의 사주해석법

3.1 고법 사주의 모형

고법 명리학의 사주 모형을 보여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명리 서적은 『이허중명서』이다. 이 책이 전국시대 인물인 귀곡자의 <귀곡자유문>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작성된 명리서인지 아닌지는 논쟁거리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허중이라는 저자 혹은 주석자의 생애 시기는 역사적으로 분명 당대(唐代)이므로 『낙록자부』와 더불어 현존하는 최초의 명리 저작이다.

『이허중명서』의 가치는 고법 명리학의 초기 사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이 책에 기술된 고법 사주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명(元命)을 승부하는 삼원(三元)은 간(干)인 록(祿)과 지(支)인 명(命)과 납음(納音) 신(身)으로 각각 지지에서 쇠왕(衰旺)의 자리로 나누어 논한다. … 천간(天干)은 天元 祿(하늘이 내린 천록)이다. 그러므로 귀함과 작위(벼슬), 衣食을 주재하는 바른 근본이요, 支는 지원(地元)으로 재(財)와 명(命)이 때에 이르러 형상을 세우는 시종(始終)의 근원이므로 빈부와 활동과 영고성쇠를 주관한다. 납음(納音)은 인원(人元)의 신명(身命)이므로 현우(賢愚)와 미추(美醜)와 형모(形貌)와 재능과 도량을 주관하니 무릇 사람은 서로(彼我) 간에 서로 生하고 剋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게 되므로 인륜(人倫)이 되며 친권(親眷)이 되는 것이다.”³¹⁾

29) 이택용, 「중국 선진(先秦)시대의 명론(命論) 연구 - 맹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03-123쪽.

30) 김만태, 「중국 命理原典 『李虛中命書』 고찰」, 『중국인문과학』 62집, 중국인문학회, 2016, 233-234쪽.

31) 李虛中, 『李虛中命書』 券中, “元命勝負三元者, 干祿支命納音身, 各分衰旺之地. … 干爲天元祿, 故主貴爵衣食之正本也. 支爲地元財命至此比形立象始終之元, 故主貧富運動榮枯. 納音爲人元身命, 故主賢

이 내용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가 글자로 형성된 간지(干支)와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조합에서 생성되는 녹명신(祿命身) 삼원(三元)으로 나타난다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녹(祿)·명(命)·신(身)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주석하고 있다.

천간 녹(祿)은 귀함(貴)을 주관하므로 군자의 성품이다. 그러면 이 성품은 어느 곳에 거처하는가? 성품이 거처하는 거성(居性)은 시(時)의 납음오행(納音五行) 신(身)이다. 따라서 본명이 천(賤)해도 시운(時運)이 있으면 천한 가운데에 귀함이 생기는 것이라 하여 시운(時運)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명(支命)은 이미 그 사람에게 정해진 성품으로 정성(定性)이다. 지지는 정해진 국면이니 그 소속된 국면을 취하여 그 사람의 정해진 성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신(身)은 성품이 작용하는 것으로 용성(用性)이다. 납음오행(納音五行) 신(身)은 인원(人元)으로 사람의 재능과 그릇의 크기를 주관하므로 활용하는 성품인 것이다. 시(時)에는 삼원(三元)의 기(氣)가 구비되어 있으니 이로써 그 사람이 거처하고 행동하는 정성(情性)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간이 구비되면 녹(祿)을 갖추게 되고, 명(命)이 이루어지면 재물이 성취되며, 신(身)이 왕지(旺地)에 있으면 관(官)이 행하여 이루어지니 귀천(貴賤)을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주는 오행으로 보좌함이니 천간 천록(天祿)은 정기가 필요하고 지지에서 넉넉히 구비되어 귀(貴)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하며 지지 명(命)과 납음오행(納音五行) 신(身)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身)과 명(命)이 거스르지 않고 왕(旺)하면 재(財)로 이어지므로 재(財)가 그중에 있게 된다. 따라서 귀천(貴賤)의 판단은 납음오행(納音五行)의 경중(輕重)과 왕쇠(旺衰)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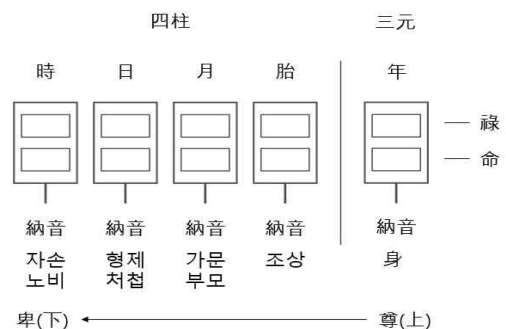
이어서 『이허중명서』에서 사주(四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주라는 것은 태월일시(胎月日時)이다. … 대저 연(年)은 근본(根本)이 되고, 일(日)은 명주(命主)가 된다. 월(月)은 사용자(使用者)가 되며, 시(時)는 보조자(補助者)가 된다. [註] 연(年)은 일(日)의 근본이고, 일(日)은 명주이다. 예를 들면 군주에게는 신하가 있고,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있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고, 나라에는 왕이 있는 것과 같다. 태월생시(胎月生時)는 주본(主本)을 돕

愚好醜形貌材能度量，凡有生則彼我生克愛憎，故爲人倫親眷也。”

고 원조(援助)하니 이로써 순서(順序)가 있어 차례로 계승하고 따라야 한다. 주(主)와 본(本)이 돕고 편안하게 화합하는데 빈천한 사람은 없으나, 시(時)와 일(日)이 연(年)과 어그러진다면 어찌 오래토록 영화로운 도리가 있겠는가. 주(主)와 본(本)이 돕고 화합하여 서로 생육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연(年)이 일(日)을 극하면 힘이 감소하고, 일(日)이 연(年)을 극하면 비록 귀(貴)를 주관하는 기(氣)가 있어도 또한 어렵고 곤궁함이 많은 것인데, 하물며 일(日)과 시(時)가 연(年)을 상극하면 어그러짐이 더욱 심할 것이다.”³²⁾

“귀곡자는 사주를 정의하기를 태·월·일·시(胎月日時)라고 하였다. 이에 이허중이 주석하기를 사주는 연주(年主)의 녹명신(祿命身) 삼원(三元)으로 만물의 근본으로 삼고 사주는 오행으로 보좌한다 하였다. 그러면 사주인 태·월·일·시(胎·月·日·時)가 주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태(胎)는 선친으로 부모조종(父母祖宗)을 말하며, 월(月)은 시기(時氣)로 사계절의 휴왕(休旺)을 구분한다. 일(日)은 월내(月內) 사계절 기운의 향배를 나타내고, 시(時)는 본명의 길흉(吉凶)과 일(事)의 진퇴(進退), 향배(向背), 역기(力氣), 승부(勝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삼원(三元)과 사주(四柱)로 구성된 고법 사주의 모형을 도식화해 보면 아래 [그림 1] 같다.



[그림 1] 고법 사주의 모형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연주(年柱)의 납음은 존(尊)이라 하고, 반대편에 있는 시주(時柱)의 납음은 비

32) 李虛中, 『李虛中命書』 券中, “四柱者,胎月日時…大抵年爲本, 則日爲主. 月爲使, 則時爲輔. 註: 年爲日之本, 日爲命主. 如君之有臣, 父之有子, 夫之有婦, 國之有王. 是胎月生時爲主本之扶援, 欲得以序相承順也. 主本保合, 未有貧賤之人, 時日乖違, 豈有久榮之理. 主本保和相育爲貴, 年剋日減力也日剋年雖主貴氣, 亦多逆剝, 況日時俱剋於年, 乖離尤甚也.”

(卑)라고 하였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까지의 과정이며, 존대로부터 비천에 이르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며 각 주(柱)마다 일정한 친족 관계를 대표하고 있다.

한편 『이허중명서』의 기록에 따라 사주를 나열해 보면 年·胎·月·日·時 순서로 오주(五柱)를 배치하게 되는데, 당시 고법 사주 모형의 통상적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신법(新法)이 등장하고 고법과 신법이 공존하던 시기인 송·명대의 기록인 『삼명통회』나 선현들의 기록을 통해 고법 사주의 사례들을 남겨 놓고 있는 서락오의 『자평수언』에서는 신법에서 사용하던 연월일시(年月日時)를 그대로 사주로 배열하고 태(胎)를 뒤에 추가로 기록하거나 연월일시 아래 따로 명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2 고법 간명 해석방법

그렇다면 고전 명리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주를 간명하고 추리를 하였을까? 첫 번째로 꼽는 고법 간명법은 납음(納音)의 조합을 통해서 추리하는 것이다. 명국(命局)의 연주(年柱) 납음과 타(他) 간지의 납음 조합을 살펴서 그 성격을 확인하고 하나의 격(格)으로 삼았다. 이에 일정한 명리적 묘사와 의미를 덧붙여 부여하며 간명의 내용으로 풀어내었다. 고법 명리학에서는 납음을 살펴서 있어도 연주(年柱)를 기준으로 하여 태월일시(胎月日時) 각 납음과의 상황을 대조하였고, 특히 시주(時柱)의 납음을 중시하였다. 『삼명통회』에서는 납음 간명법을 ‘전투복강형충파합(戰鬪伏降刑沖破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각 주(柱)의 납음들이 전투(戰鬪)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복강(伏降) 즉, 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형충파의 관계와 합의를 관계를 추가적으로 추리에 활용하고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납음격(納音格)이 14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전투위복격(戰鬪爲福格), 전투위화격(戰鬪爲禍格), 복강위복격(伏降爲福格), 복강위화격(伏降爲禍格), 충파위복격(沖破爲福格), 충파위화격(沖破爲禍格), 제형위복격(制刑爲福格), 야형위화격(惹刑爲禍格), 육합위복격(六合爲福格), 육합위화격(六合爲禍格), 생왕위복격(生旺爲福格), 생왕위화격(生旺爲禍格), 사절위복격(死絕爲福格), 사절위화격(死絕爲禍格)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기본 납음 간명법은 年月日時 방향으로 쉼하는 명조를 상극하(上剋下)라 하였는데, 상극하(上剋

下)는 순(順)하여 존(尊)이 비(卑)를 제어하는 것이므로 순리대로 이루어진다 하였고, 하극상(下剋上)은 역(逆)하여 비(卑)가 위를 범하는 것이므로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다 하였다. 반대로 상생하(上生下)는 열(劣)하니 빈천(貧賤)하다고 보았고, 하생상(下生上)은 우(優)하니 관직에 나아간다 보았다. 그리고 함께 사용했던 또 하나의 납음 추리 방법은 지지오행(地支五行)과 납음오행(納音五行)의 생극(生剋) 관계를 살펴서 추리하는 방법도 겸하여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 고법 간명법에 사용된 추리방법은 신살(神殺)을 이용한 간명법이다. 고법의 명리 이론에서는 신살을 십이신살(十二神殺)과 길신류(吉神類), 흉살류(凶殺類)로 나누고 추가로 삼기(三奇)와 공망(空亡)도 사용하고 있었다. 역학(易學) 전반에 걸쳐서 신살은 수백 종을 넘고 명리학에서만도 100여 가지 이상을 사용한다. 그렇다 보니 실제 사주를 간명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신살(神殺)을 학습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것이다. 송·명대에는 고법과 신법이 혼재되어 활용되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신살을 암송하고 쉽게 간명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류법은 신살이 발현되는 지지(地支)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인신사해조(寅申巳亥組), 자오묘유조(子午卯酉組), 진술축미조(辰戌丑未組) 3가지로 분류하고 학습 및 간명에 활용하였다.

인신사해조(寅申巳亥組)에 포함되는 신살은 寅申巳亥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살로 망신(亡神)과 겁살(劫殺)이며 길신으로 역마(驛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파택살(破宅煞)과 파쇄살(破碎煞)도 흉신으로 나타난다. 자오묘유조(子午卯酉組)에 포함되는 신살은 子午卯酉에서 나타나는 신살로 함지살(咸池殺) 혹은 도화살(桃花殺), 양인살(羊刃殺), 음착양차살(陰錯陽差煞), 재살(災殺) 등이 있다. 진술축미조(辰戌丑未組)에 포함되는 신살은 백호살(白虎殺), 반안살(攀鞍殺), 화개살(華蓋殺), 천살(天殺), 월살(月殺) 등이 있다.

신살(神殺)은 제각각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통변성이 있으므로 사주 내에 해당 신살이 나타나면 그에 따라 통변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단식판단 외에 사주 전반에 걸쳐 길흉을 판단했던 신살 간명법은 살중포살(煞中包煞), 분산영령(分散英靈), 취감정신(聚斂精神), 극출극입(剋出剋入), 주전살후(主前煞後), 찬취분산(攢聚分散)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살중포살(煞中包煞)은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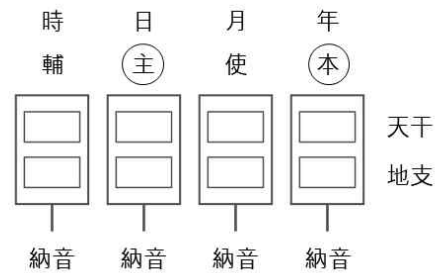
時 중 하나의 궁에 여러 살(殺)이 취집(聚集)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살(殺)이면서 한편 장생(長生)이거나 귀인(貴人)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살(殺)이 변하여 생(生)이 되기도 한다. 또, 찬취분산(攢聚分散)은 2개의 흉신이 月, 日, 時 중 하나의 궁(宮)에 집중되는 취집(聚集) 상태가 아니고 하나는 일지(日支)에 하나는 시지(時支)에 있는 식으로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살이 많아 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너무 과하게 많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세 번째로 록마(祿馬)의 향배(向背)를 살피는 것이다. 고법(古法)에서 사주의 부귀를 살피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록마(祿馬)인데 록(祿)은 연주(年柱)가 상징하는 가문의 영광과 부귀를 이어갈 인물로 연간(年干)의 뿌리를 살폈던 것이고, 마(馬)는 집안의 살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활동력이 강하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인가를 살폈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록(祿)은 귀(貴)를 상징하고 신법의 관(官)에 대응되고, 마(馬)는 부(富)를 상징하고 신법의 재(財)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고법 명리학에서 사주에 십간록(十干祿)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록마(祿馬)가 같은 궁에 있으면 명(命)은 한층 더 강해진다 하였고, 반대로 록(祿)이 깨지면 모아둔 자재가 흩어지는데 조상의 가업은 전부 공허하게 변한다 하였다.

고법이 생년을 중심으로 가문의 영광과 부귀를 이어갈 인물로서의 명(命)의 추명을 하였던 것에 반하여 송대부터 시작된 신법 명리학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개인의 부귀와 길흉을 논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일간의 뿌리로서의 지지의 비견(比肩)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록(祿)과 그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허증명서』에 등장하는 고법 간명법 중에 현대 명리학자들에게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혼란을 주는 간명법이 ‘연본일주론(年本日主論)’인데 이는 연(年)이 근본(根本)이 되고, 일(日)이 주체(主體)가 된다는 것으로 주체가 되는 일주(日主)에 상위 개념인 연본(年本)을 포함하여 사주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사실 『이허증명서』의 전반적 이론의 흐름은 연본(年本)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 의심할 여지는 없으나, 일(日)을 주(主) 즉, 주인(主人)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은 서자평의 신법(新法) 명리학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변화

인데 어찌 이 내용이 『이허증명서』에 나타나 있는냐는 것이다. 이 논리는 『이허증명서』가 당대(唐代)의 저작이 아니라 당 이후 오대십국(五代十國)과 송대(宋代)에 이르러서 자평 명리학과 접하고 두 개의 사상이 충돌하고 있는 시점에 쓰여졌을 것이라는 준거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이허증명서』에서는 사주를 논함에 있어 주체인 일(日)의 근본이 연(年)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연본(年本)을 주장하여 사주를 연본일주(年本日主)를 중심으로 살피었다.”



[그림 2] 年本日主와 年月日時의 역할

더욱이 고법 명리학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납음(納音)과 신살(神殺), 그리고 십이운성(十二運星)을 자평 명리학과 접목시켜 함께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연본일주론(年本日主論)’은 중요한 시발점이자 최종 목표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명리학 신법의 사주해석법

4.1 서자평의 신법 창출

서자평(徐子平)은 오대 말에서 북송 초에 활동한 명리학자로 태화산(太華山) 당봉동에 은거하였다고 알려져 있었다. 만민영의 『삼명통회』 ‘자평설변’에 기록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연해자평』의 원저자인 서대승과 300여 년의 간격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서자평 저술 본문에 근거하여 좀 더 고증해 보면 그는 남송(南宋) 1~2대 황제인 고종(高宗)과 효종(孝宗) 시기에 생존했던 인물이며 서대승과는 100여 년의 시대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명리학의 중조(中祖)로 인정받고 있는 서자평은 2권의 주석서 『옥조신용진경』과 『낙록자삼명소식부주』 그리고 직접 저술한 『명통부』를 남겼다.

서자평의 명리이론은 기존의 고법 명리학에 비해 독창적이며 900여 년동안 그 이론의 실효성이 실관(實觀)을 통해 증명되며 사용되었지만 사실 고법(古法)의 토양을 딛고 시대적 변화를 명리학에 수용하며 발전된 이론이다. 서자평의 주석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의 주석문만을 통해 서자평의 명리이론을 살펴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주석서의 특성상 주석자가 원문 저자의 의도를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석문의 내용을 그대로 서자평의 명리이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표 1> 서자평 주석서 및 명통부 논리구조 변화

玉照神應眞經	珞璣子三命消息賦注	明通賦
日干 중심이나 年本기준 병용 正五行 기준이며 納音은 철저히 배제 六壬을 간명에 사용, 十星의 개념 불확실 三元, 四柱 불명확, 胎月의 사용 지속 支藏干 아직 미사용 大運, 小運, 太歲	日干的 建祿을 사용 官祿, 財祿을 병행 胎月의 완전 배제, 納音 용어 1회 등장 每一宮有三元, 人元에 支藏干 확립 七煞, 財, 比劫, 印綬 食傷 등이 기록됨 十星을 六親과 연계 大運의 원리 승계	珞璣子賦의 陰陽五行 및 大運의 원리 유지 支藏干의 특징을 명시하고 節氣 및 月律分野 원리 표출 日干爲主 및 日干的 祿根으로 強弱 인식 十星 구분이 분명, 生剋制化, 得失進退 官·財·印의 중시

그의 『옥조신응진경』은 장옹이 주석한 『옥조정진경』을 바탕으로 일간위주(日干爲主) 자평 이론을 실험해 보기 위한 가설 노트를 작성해 보았던 것이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첫째, 간명 주체를 연본(年本)에서 일간(日干)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 일부 예시에서는 연본(年本)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일간으로 바꾸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드러낸다. 둘째, 납음(納音)의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가 시작되었다. 괘박 원문 기록에서 납음의 뜻인 ‘음’자를 ‘支’자로 바꾸는 시도까지 하며 납음오행의 배제를 시도하였다. 단, 지장간(支藏干)의 사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관성(官星)이라는 새로운 십성의 용어가 등장한다. 단, 아직 인성(印星)과 식상(食傷) 등에 대한 개념은 드러나지 않는 십성의 초기 단계였다. 하지만 태월(胎月)을 아직 사용한다거나 소운(小運)의 사용을 유지하고 있고 수토동궁설(水土同宮說)을 준용하는 그의 주석 패턴은 고법 명리학에서 신법 명리학으로 이관

되는 과정 중에서 초기 단계였음을 보여준다. 육임(六壬) 해석법을 그대로 수용한다거나 장옹(張顛)의 주석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점들도 아직은 이론적 완성이 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그의 『낙록자삼명소식부주』는 타 명리서에 비해 무형학적 명리사상을 펼치고 있던 『낙록자부』의 고법 사상 아래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론이 기존 사상의 큰 프레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 둘의 차이점은 첫째, 일간(日干) 주체 간명법이 완성되면서 삼원(三元)이론을 분명하게 바꾸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지장간(支藏干)의 사용이 분명해졌다. 둘째, 고법에서 중시하였던 록(祿)의 개념을 관록(官祿)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였고 향배(向背)의 개념을 관(官)의 향배, 재(財)의 향배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사상의 틀을 크게 깨트리지 않고 공존하며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관(官)과 재(財)의 생왕사절(生旺死絕)을 살피는 간명법이 등장한다. 셋째, 십성(十星)의 각 요소들이 대부분 등장하고 있다. 비겁(比劫), 인성(印星), 식상(食傷)의 사용이 분명하고 육친(六親)과 연계하는 간명도 나타나면서 십성의 체계가 완성되는 단계이다. 넷째, 변화의 단계가 『옥조신응진경』에서 한 발짝 나아가 납음(納音) 외에 태월(胎月)까지 배제시키고 있다. 하지만 『낙록자부』에 기록된 신살(神煞)을 그대로 부연하는 수준에서 정리한다거나 연지(年支) 기준이 사용되고, 소운(小運)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궁위(宮位)와 연결된 육친에서 혼선을 보이는 등 고법 이론과의 공존이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낸다. 이 2권의 주석서는 새로운 명리 사상을 펼치고, 기존 이론을 취하거나 버리는 것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서자평은 자신이 완성한 일간위주(日干爲主) 간명법과 격국 이론을 기록하여 남기고자 마침내 『명통부(明通賦)』를 완성한다.

4.2 신법 간명 해석방법

서자평에 의해 창출된 신법 명리이론은 첫째, 자평명리의 기본원리로 일간위주(日干爲主) 간명, 지장간(支藏干)의 활용, 십성(十星)을 통한 추론, 관(官)·재(財)의 중시 등이 제시되어 있다. 명(命)을 간명함에 있어 일간(日干)을 그 기준으로 삼았고, 팔자(八字)와 간지(干支)를 펼쳐 놓고, 천간(天干)과 지지(地支) 그리고 그 안의 지

장간(支藏干)을 함께 살피는 것이 간명의 기본이 되었다. 지장간(支藏干)이란 지지에 숨어있는 천간이란 뜻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한다. 절기 안에서 그 남겨진 수리를 가지고 섞여 있는 가운데 구분해 내는 것이라 하였다.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나머지 간지(干支)들은 생극제화(生剋制化)에 따라 관(官), 인(印), 재(財), 식(食), 비(比) 등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명(命)에서 이러한 십성(十星)은 신(神)이자 살(煞)이므로 서로 얽혀 있다면 각각의 경중(輕重)을 비교하여 간명한다. 사주 내에 다양한 십성(十星)의 기운이 있는데 특히 관(官)과 재(財)가 중요하다. 관(官)을 보호하고 통로의 역할을 하는 인(印)까지 포함하여 재(財), 관(官), 인(印)이 천간에 서 조합되면 록마가 동궁하는 셈이니 내외삼기(內外三奇)라고 부르기도 한다.

둘째, 월령과 십성을 중심으로 한 팔정격(八正格), 그리고 변격(變格), 외격(外格) 등 자평명리의 격국론이 완성되어 있다. 사길신(四吉神)류에 속하는 정관격, 정인격, 재격, 식신격과 사흉신(四凶神)류에 속하는 칠살격, 상관격, 편인격, 양인격이 팔정격(八正格)에 속하고, 초기 종격과 곡직격, 염상격, 종혁격, 윤하격, 금신격, 시편재격, 시상일위귀격, 화기격, 귀록격 등은 변격(變格)으로 분류되고, 비천록마격, 임기용배격, 육음조양격, 육을서귀격, 자요사격, 축요사격, 정란차격, 형합격, 합록격, 공귀격, 공록격, 도충격, 암합격 등은 외격(外格)으로 분류된다. 이 격국들은 『연해자평』에 계승되면서 송·명대 자평명리의 격국법으로 사용되지만 후일 청대(清代)에 이르러 잡격류는 배격된다.

셋째, 일간의 억부(抑扶)로 명의 균평(均平)을 맞추는 억부용신론(抑扶用神論)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일간(日干)의 신강신약(身強身弱)에 따른 용신 취용법인데 격국(格局)에 따른 상응(相應) 용신(用神)과 더불어 서자평은 일간(日干) 억부용신과 격국(格局) 상응용신 2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단, 서자평은 신강한 사주의 극제(剋制)와 설기(洩氣)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억부용신보다는 격국에 따른 십성의 생극관계로 취운(取運)을 살피고 있다.

넷째, 궁위론(宮位論)은 사주의 배합이 바뀌고 생왕사절론(生旺死絕論)은 그 기준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고법(古法) 이론이 계승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고법(古法)에서 사용되던 궁위 이론 중에서 태월(胎月)에 해당

하는 조상궁(祖上宮)의 개념이 연주(年柱)로 이관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 대동소이하다. 단, 일간위주(日干爲主) 간명에 따른 영향일 수 있는데 일지(日支)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자평 시대에 이르러 간명의 주체가 바뀌는 변화에 따라 생왕사절을 따지는 기준도 年에서 日로 바뀌고 있고, 매일궁(每一宮)에 삼원(三元)이 있다고 여겼기에 관(官)·재(財)를 기준으로 12궁을 살피는 경향도 갖게 된다. 생왕사절12궁은 일간(日干)의 신강신약(身強身弱), 그리고 십성(十星)의 생극제화와 함께 조합되어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절지(絕地) 혹은 휴수(休囚)는 관살(官煞)과 흐름이 겹치므로 신강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묘(墓)의 개고(開庫)를 중요하다고 여겼다.

다섯째, 서자평의 신살론(神煞論)은 서자평이 고법(古法) 신살들 중에서 본인이 간명에 활용하는 신살들을 취사선택하여 기록해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자평이 사용한 신살의 종류는 ‘천월이덕(天月二德)’, ‘천을귀인(天月二德)’, ‘괴강살(魁罡煞)’, ‘고진살(孤辰煞)’, ‘과숙살(寡宿煞)’, ‘공요살(控邀煞)’, ‘격각살(隔角煞)’, ‘탄담살(呑陷煞)’, ‘공망(空亡)’, ‘원진살(元嘖煞)’, ‘순음순양(純陰純陽)’, ‘양인살(羊刃煞)’, ‘관살(關煞)’ 등이다.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명리학 고법과 신법의 사주해석법을 각각 살펴보면 그 논리구조의 차이점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연본(年本) 기준 간명법을 일간위주(日干爲主)로 바꾸어 간명을 시작하였다는 점, 고법에서 가장 중시하던 록(祿)의 향배(向背)를 관록(官祿)의 향배로 의미를 바꾸어 사용하고, 관(官)과 재(財)를 중시하며 향배의 유형을 향관(向官), 향재(向財)로 쓰고 있다는 점, 록마(祿馬)와 존비(尊卑)의 위상을 살핌이 십성(十星)의 생극제화로 변화되었다는 점, 인간의 氣에 해당하는 인원(人元)의 상징이 납음오행(納音五行)에서 지장간(支藏干)이라는 다른 상징체계로 바뀌어 있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둘 사이 논리구조의 유사점은 철학적 사유는 유사하나 그 방법론은 일부 변화한 것들도 있다. 첫째, 천간과 지지에 하늘과 땅의 철학적 투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법 명리의 논리구조에서 하늘을 천원(天元)이라

하고 녹(祿)이라 하였다. 녹(祿)은 곧 복(福)이다. 그리고 4개의 천간 중에서도 연간(年干)이 녹(祿)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녹(祿)을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으나 그 녹(祿)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여부가 그 사주의 복록(福祿)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연간(年干)을 녹(祿)이라 하며 연간이 지지(地支)에 뿌리내린 것을 또한 록(祿)이라 한다. 땅은 지원(地元)이라 하고 명(命)이라 하였다. 명(命)은 연지(年支)를 가리키는 것이며, 인간이 부여받은 길흉(吉凶)과 부귀(富貴)의 흐름을 살피는 출발점이 된다. 연지(年支)를 기준으로 삼합과 신살(神殺)을 찾고 록마(祿馬)의 향배(向背)를 살핀다. 한편, 신법 명리의 논리구조에서 하늘과 땅은 천간 4개가 모두 하늘이며, 지지 4개가 모두 땅에 해당한다. 서자평은 『낙록자삼명소식부주』의 주석문에서 “매일궁유삼원(每一宮有三元) 유천원인원지원(有天元人元支元) - 매 하나의 궁마다 삼원이 있으니, 천원 인원 지원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자평은 고법에서 연간(年干)과 연지(年支) 2글자로 한정되어 있던 삼원(三元)의 개념을 연월일시 천간지지 8글자 모두로 확장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준과 시각의 변화가 시대에 따라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천간은 하늘의 기이며 지지는 땅의 유행(流行)임은 변화지 않은 명리의 근본적 논리구조이다. 하늘의 기가 땅에서 유행하고 인간에게 스며드는 현상을 태어난 해, 1개의 기준으로 살피는 것보다 태어난 월·일·시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살피야 한다는 사고의 확장이 나타난 것이다.

둘째, 궁위론(宮位論)의 논리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법 고전 중에서 『낙록자부』는 근묘화실(根苗花實)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근묘화실은 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年月日時의 궁위(宮位)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법이 되었다. 『낙록자부』 19번째 부문에 “씩의 조짐을 관찰하여 그 근원을 살핀다. 뿌리[根]가 싹[苗]보다 먼저이고, 꽃[花]의 뒤에 열매[實]가 따라온다.”³³⁾라고 근묘화실을 기록하고 있다. 고법학자 왕정광은 근묘화실(根苗花實)을 태월일시(胎月日時)라고 하였다. 한편, 서자평은 『낙록자삼명소식부주』 주석에서 年月日時의 궁위를 설명하며 年을 조종(祖宗)의 궁, 月을 부모(父母)의 궁, 日을 인신자득(人身自得)의 궁, 時를 자손(子孫)의 궁이라 하였다. 궁위의 활

33) 『珞珠子賦注』 19 “觀乎萌兆，察以其原，根在苗先，實從花後。”

용을 살펴보면 생월(生月)에 관인(官印)이 있으면 명주(命主)의 관은 조종(祖宗)에서 나온 것이고, 생월(生月)의 지지에 재(財)가 있으면 명주는 조상의 재물을 갖고, 만약 생시(生時)의 지지에 재(財)가 있으면 형충극과(刑衝剋破)가 없는 명주가 스스로 재물을 일군다 하였다.³⁴⁾ 이 주석에서 특히 관(官)·재(財)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고, 생시(生時)에 대한 강조도 유독 눈에 띈다. 이런 경향은 후일 『명통부』에서도 정관격과 정재격에 있어서 時의 조력을 강조한다거나, 일록귀시격(日祿歸時格), 시상편재격(時上偏財格), 시상일위귀격(時上一位貴格) 등의 생시(生時)를 중심으로 한 유형의 격국이 나타나는 이론 흐름을 보인다. 또 서자평이 궁위(宮位)의 年月日時를 조종(祖宗), 부모(父母), 자득(自得), 자식(子息)의 순으로 배열함은 정확히 인생의 나이를 구분한 것은 아닐지라도 유년, 청년, 장년, 노년의 삶의 흐름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십이운성(十二運星)과 신살(神煞)의 논리구조에서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하나 그 기준에서 변화를 보인다. 고법 명리의 생왕사절 혹은 십이운성의 기준점은 연간(年干), 즉 록(祿)의 향배였다. 연간(年干)이 甲이면 亥에서 장생하고 寅에서 건록하고 午에서 죽고 申에서 끊어진다 여겼다. 신법에서는 기준이 연간에서 일간(日干)으로 바뀌었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서자평의 글에 나타난 설명이나 예시를 보면 관대(冠帶), 재고(財庫), 쇠향(衰鄉) 등 생왕사절 12궁의 술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점이 일간(日干)이 아니라 재(財)와 관(官)에 해당하는 천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지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신살(神煞)은 고법 명리학에서 사주의 길흉을 판단하는 중요한 간명 요소로 사용되었다. 천을귀인(天乙貴人), 천월이덕(天月二德) 등이 속하는 길신류(吉神類)와 괴강살(魁罡煞), 고진과숙살(孤辰寡宿煞) 등이 속하는 흉살류(凶煞類)를 함께 총칭하여 신살(神煞)이라고 불렀다. 신법 명리학이 송대에 창출되고 명·청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면서 신살의 지위는 많은 신법 명리학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논리적 오류를 지적받으며 격하

34) 徐子平, 『珞珠子三命消息賦注』 2-[徐註] “若生月內 有官印于生日天元 則主官出祖宗 如生月及支內 有財于生日天元 則主有祖財 若生時支內 有財 別無刑衝剋破 則主自立財”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신살(神煞)은 고법과 신법을 망라한 명리학의 긴 역사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고 사주 간명법 중에서 가장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신살의 기준은 고법과 신법으로 양분하여 하나의 기준이 다른 어떤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신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기준 또한 각 신살마다 여러가지로 나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길신인 천을귀인(天乙貴人)의 경우는 고법에서는 연간(年干)을 기준으로 삼았고 신법에서는 일간(日干)을 기준으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고진살과 과속살의 경우도 고법에서는 연지(年支)를 기준으로, 신법에서는 일지(日支)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예시들을 고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공요(控邀), 격각(隔角), 탄담(呑陷), 공망(空亡), 원진(元噴) 등 여러 신살의 기준은 그 변화가 모호하다. 현대 명리학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십이신살(十二神煞)의 경우도 고법에서는 연지(年支)의 삼합오행이 기준이었으나 신법에서는 연월일시 4개의 지지를 모두 기준 삼아 대세운(大歲運)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살피기도 한다.

5.2 결론

현대 명리학은 송대(宋代) 서자평(徐子平)이 창시한 자평 명리학이 그 근간이 되어서 송(宋)·원(元)·명(明)·청(淸)을 걸쳐 체계화되고 심화 발전되어 왔다.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십성(十星)의 생극제화를 살피고, 월령(月令)을 근거로 삼아 격국(格局)을 잡고 용신(用神)을 사용한다. 그런데 아직도 현대 명리학계에서는 신살(神殺)의 적용 여부 및 적절성을 논쟁하고, 십이운성(十二運星)의 음양을 동생동사(同生同死)와 음생양사(陰生陽死) 중 어떤 이론이 맞는지를 가지고 토론한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고법 명리학의 간명법과 이론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고법 이론들이 신법 자평학과 혼재되고 섞이면서 십이운성을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살피고, 일지(日支)를 기준으로 다른 지지에 있는 도화살을 찾아 그 성정을 이야기한다.

앞 절에서 고법의 사주 모형을 재현하고 신법의 사주 해석 핵심 방법을 정리해 봄으로써 그 둘 사이의 논리구조를 비교해 보았다. 명리학이 명리철학(命理哲學)이라는 사상적 개념과 명리술수(命理術數)라는 기술적 개념

으로 양분된 채 술수적 기술에 더욱 집중하여 연구되고 전승됐던 까닭에 고법과 신법의 논리구조 변화는 둘 사이의 단절 현상을 명리학계에 남겨놓고 말았다. 하지만 명리학 고법과 신법 모두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천간지지(天干地支)라는 자연의 상징체계, 천지인 삼원(三元)에 투영된 천인 감응 사상, 연월일시의 궁위가 가진 세대와 시간의 개념, 천기(天氣)의 생왕사절 유행(流行) 등의 자연법에 기인한 철학과 논리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 명리학에서는 고법을 등한시 하고 명리철학의 사상적 요소를 배제한 채 술수적 효용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이론이 여러 갈래로 나뉘기도 하였다. 명리학 고법이 명리의 원형이자 철학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법과 신법의 통시적 연구와 명리철학에 대한 위상의 정립이 명리학계의 여러 가지 논쟁의 해답과 추적해 내지 못한 이론의 근거를 찾아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고법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주를 간명하였는지를 정확히 소개하는 저술서가 부족하고, 구전 학습으로 전해져 오던 고법 간명법들도 신법 자평학과 혼재되어 사용되다 보니 그 중심 간명법 체계는 잊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법 간명법의 체계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앞으로 명리학 고법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됨으로써 개인의 길흉과 행운을 중심으로 살피는 신법(新法) 간명법과 더불어 그 가문의 성쇠와 부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인가를 살폈던 고법(古法) 간명법 또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고영택(2006), “中國 古典 命理書에 대한 哲學的 이해”, 철학논총 43집, 새한철학회.
- [2] 김계성(2016), “十二運星과 陽順陰逆의 상관성에 대하여 - 사주명리를 중심으로”, 동양학 65집, 동양학연구원.
- [3] 김우정(2017), “『珞珠子三命消息賦注』의 命理理論 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74집, 원불교사상연구원.
- [4] 문재곤(1989), “음양오행론의 전개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14집, 고려대학교철학회.

[5] 박은경(2017), “四柱의 기원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 중국학 58집, 대한중국학회.

[6] 서금석(2015), “子平 四柱學 淵源의 五代說에 대한 再論”, 역사와경계 95집, 부산경남사학회.

[7] 신경수(2003), “唐·宋代 命理의 三才論과 主體觀點 研究”, 원광대학교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심규철(2003),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9] 윤정리(2005), 「옥조신응진경주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세현(2000), “儒家 天人合一論의 특징”, 동양철학연구 22집, 동양철학연구회.

[11] 이영무(2011), 「12신살에 관한 연구: 명리학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정하용(2013), 「패기역학과 명리학의 원류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조규문(2009), 「천장 원수성의 명리사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최영숙(2013), 「이허중명서의 명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황금옥(2018), “『오행정기(五行精氣)』 복원의 후대적(後來的) 영향”, 한국민속학 67집, 한국민속학회.

[16] 김기승, 나혁진(2017), 『명리학사(命理學史)』, 서울: 다산글방.

[17] 만민영 著, 김이남, 이명산 譯(2011), 『삼명통회』, 서울: 삼하출판사.

[18] 서자평 著, 최국봉 譯(2009), 『삼명통신』, 서울: 온북스.

[19] 서자평 撰, 문중란 譯(2017), 『낙록자삼명소식부주』, 서울: 한국학술정보.

[20] 서대승 著, 오청식 譯(2009), 『연해자평』, 서울: 대유학당.

[21] 석담영 撰, 문중란 譯(2016), 『낙록자부주』, 서울: 한국학술정보.

[22] 郭 璞(晉), 『玉照定眞經』, 四庫全書/ 子部/ 術數類.

[23] 徐子平(宋), 『玉照神應眞經』, 古今圖書集成/ 藝術典 / 星命部.

[24] 徐子平(宋), 『珞珠子三命消息賦注』, 四庫全書/ 子部 / 術數類.

[25] 徐 升(宋), 『淵海子平』, 台北: 進源書局.

[26] 釋曇瑩(宋), 『珞珠子賦注』, 四庫全書/ 子部/ 術數類.

[27] 張 楠(明), 『命理正宗』, 台北: 集文書局.

[28] 袁樹珊(2000), 『命理探原』, 台北: 武陵出判.

[29] 李鐵筆(2001), 『八字明通賦評註』, 台北: 益群書店.

[30] 鄒文耀(1982), 『子平命學考證』, 台北: 瑞成書局.

나 혁 진 (Na, Hyeok-Jin)



- 2000년 2월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 2004년 2월 : 시드니공과대학 정보기술학과 (Graduate Diploma)
- 2017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국학석사)
- 2020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관심분야 : 명리학, 정보처리기술, 교육학
- E-Mail : peter750504@naver.com

정 경 화(Jung, Kyung-Hwa)



- 2012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직업학석사)
- 2020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동양학박사)
- 2009년 2월 ~ 2013년 6월 :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직업상담사
- 2013년 7월 ~ 2018년 6월 : 서울고용노동청 직업상담사
- 2020년 6월 ~ 현재 : 다음평생교육원 재직 중
- 관심분야 : 진로&직업상담, 직업정보, 선천적성, 성격심리
- E-Mail : swithom66@naver.com